

전남 바둑, 2024 KBF바둑 정규리그 1위



전남바둑이 2024 KBF바둑리그 정규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왼쪽부터 신현석, 한유정, 김현아, 신철호 감독, 홍근영, 김진우, 심해솔, 허영락 코치 <대한바둑협회 제공>

'9승 1패'...신현석·한유정 남녀 다승상 수상 18일부터 플레이오프...26일 챔피언결정전

전남 바둑이 2024 KBF바둑리그 정규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다. 11개 팀이 풀리그를 벌인 결과 9승 1패를 거뒀다. 기명도 단장, 신철호 감독, 김진우, 신현석, 심해솔, 홍근영 등 남자선수 4명과 김현아, 이루비, 한유정 등 여자선수 3명으로 팀을 꾸린 전남은 지난 7-8일 인천 영종도 골든홀호텔 2층 특별대극장에서 열린 2024 KBF바둑리그 정규리그 최종 9-11라운드 경기에서 2승을 추가하며 최종 9승 1패

(개인 승리 35)의 성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8라운드까지 무패를 이어간 전남은 9라운드에서 경기도를 5대0으로 꺾고 내심 전승우승을 노렸으나 10라운드에서 부산 이봉장학회에 패해 첫 패배를 기록했다. 전남은 최종 라운드에서 인천 SRC 팜을 제압하며 무난하게 1위로 정규리그를 마쳤다. 전남에 이어 부천시(8승 2패·개인 승수 33)가 2위, 부산붉은노을(8승 2패·개

인 승수 35)이 3위, 충북(6승 4패·개인 승수 32)이 4위, 부산 이봉장학회(6승 4패·개인 승수 31)가 5위를 기록하며 포스트시즌 티켓을 획득했다. 개인 성적에서는 신현석(전남)과 김정선(부천시)이 나란히 9승 1패로 남자 다승상을, 한유정(전남)과 정하음(부산 붉은노을)이 나란히 9승 1패로 여자 다승상을 받았다. 기명도 단장은 "열심히 경기에 임해준 선수들의 열정과 끈끈한 팀워크가 이뤄낸 결과"라며 "올해 전국체전에서 성적에 다소 아쉬웠는데, KBF 정규리그를 1위로 마무리 해 무척 기쁘다. 우승까지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플레이오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챔피언결정전은 26일 더블헤더로 경기도 성남 판교 K바둑스튜디오에서 치러진다. 챔피언결정전이 1대1로 맞서면 27일 최종전이 진행된다. 2024 KBF바둑리그는 각자 30분의 제한시간에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며 포스트시즌 성적에 따라 1위 2천만원, 2위 1천800만원, 3위 1천600만원, 4위 1천500만원, 5위 1천400만원을 시상한다. 2024 KBF바둑리그는 (사)대한바둑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후원하며 K바둑에서 방송 중계하고 사이버로 가수순중계 한다. /박희중기자



김주형이 9일 열린 PGA 투어 이벤트 대회 히어로 월드 챌린지 최종 라운드 13번 홀에서 티샷 후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또 세플러에 막혔다" 김주형, 우즈 추격 대회 준우승

김주형이 또 한 번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의 벽에 막혀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김주형은 9일(한국시간) 바하마의 올버니 골프 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이벤트 대회 히어로 월드 챌린지(총상금 5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쳤다. 25언더파 263타로 우승한 셰플러에게 6타가 뒤진 김주형은 4라운드 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타이거 우즈(미국)가 추격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는 PGA 투어 정규 대회는 아니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 20명이 출전하고 대회 성적에 따라 세계랭킹 포인트가 부여된다. 2022년에 이어 이 대회 두 번째 출전한 김주형은 2022년 공동 10위에 이어 두 번 모두 상위권에 올라 PGA 투어 최정상급 기량을 입증했다. 이 대회에 출전한 20명은 대부분 내년 1월3일 미국 하와이주에서 열리는 PGA 투어 시즌 개막전 더 센트리아 나설 예정이라서 김주형은 개막전에 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손흥민, 빛바랜 시즌 5호골...토트넘, 첼시에 3대4 역전패



토트넘의 손흥민이 9일 열린 첼시와의 EPL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역전패 당한 후 아쉬워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토트넘, 팀 통산 11번째 '2골차 이상 앞서다 역전패' 손흥민 "나의 실수...팀 실망시켜 미안" 책임 통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첼시와의 '런던 더비'에서 '캡틴' 손흥민의 시즌 5호 골에도 역전패의 수모를 당했다. 토트넘은 9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24-2025 EPL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2-0으로 앞서다 3-4로 무릎을 꿇었다. 이날 패배로 정규리그에서 2연패에 최강 3경기 연속 무승(1무 2패)에 빠진 토트넘은 6승 2무 7패(승점 20)로 1위 에펠탑인 가운데 4연승 행진을 펼친 첼시는 9승 4무 2패(승점 31)로 2위에 자리했다. 손흥민은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팀이 2-4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시간 시즌 5호 골(정규리그 4골 포함)을 터뜨렸지만, 팀의 역

전패로 빛이 바랬다. 아쉬움이 가득한 패배였다. 통계 전문 유포에 따르면 토트넘이 EPL 무대에서 2골 차 이상 앞서다 역전패를 당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다른 팀들보다 적어도 4경기 이상 많은 게 유포의 설명이다.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 나선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역전패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손흥민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전반에는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아주 엉성하게 실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디테일이 부족해 패한 것 같다"라며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한 발 더 뛰며 득점해야 한다. 내가 팀을 실망시킨 것 같다. 팀에 미안하다"고 아쉬워했다.

손흥민은 이어 "이런 식으로 실점하면 안 된다. 하루 종일 오늘의 실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신 나를 비난해줬으면 좋겠다. 비난은 내가 감수하겠다"고 책임을 통감했다. 비록 득점에 성공했지만, 두 차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선 "공을 향해 달려가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며 "나 역시 인간이고, 실수하고 말았다.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괴로웠다. 동료들은 열심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역전패를 지켜본 팬들에게 응원을 호소했다. 손흥민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는 모두 뭉쳐야 한다. 큰 응원이 필요한 이유"라며 "선수들이 아직 어리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팬들은 항상 놀람도록 응원해줬고, 이제 선수들이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9일 사무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성평등 인식 제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광주시체육회, 아동학대 예방 및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광주시체육회가 9일 광주시체육회 관 중회의실에서 사무처 임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사무처 임직원과 종무별 지도자, 선수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 강사인 김재호 강사의 '인권과 관계 감수성을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재호 강사는 4대 폭력 예방 교육으

로 4대 폭력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개념과 유형을 설명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및 가치관 재정립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전갑수 광주체육회장은 "지도자와 선수,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1조원대 계약을 앞둔 후안 소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후안 소토, 세계 프로 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 계약 눈앞

"최대 1조1천555억원, 메츠와 입단 합의"

후안 소토(26)가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ESPN은 9일 "슈퍼스타 외야수 소토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와 15년 7억6천500만달러(약 1조 983억원) 규모에 입단 합의했다. 연평균 5천100만달러, 총 7억6천500만달러는 모두 보장 금액"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소토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억달러(약 1조1천487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메츠는 계약 기간 내에 모든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MLB닷컴은 "소토는 7천500만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5시즌(2029년)이 끝

나면 옵트아웃(계약 파기 후 FA 자격 취득)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급 유예' (디퍼) 없이 계약 기간에 모든 금액을 수령한다"며 "메츠가 2000년부터 10시즌 동안 평균 수령액을 5천100만달러-5천500만달러로 인상하면 옵트아웃 조항은 무효가 되고, 소토는 15년 동안 최대 8억500만달러(1조1천555억원)를 챙길 수 있다"고 세부 계약 내용도 공개했다. 아직 메츠 구단은 소토 영입에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ESPN, MLB닷컴, 뉴욕포스트 등 주요 매체가 앞다퉀 "메츠가 소토와 15년 7억6천50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전했다. 계약이 확정되면 소토는 오타니 쇼헤이(30)가 지난해 12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하며 기록한 10년 7억달러(당시 환율로 9천200억원)를 넘어 '전 세계 프로스포츠 사상 최고액 계약 재취득'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급 유예' 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연합뉴스

KLPGA 버디퀸은 노승희

344개로 308개 윤이나나 체제

올해 한국여자오픈 등에서 2승을 올린 노승희(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버디퀸에 올랐다. KLPGA 투어는 노승희가 올해 344개의 버디를 잡아내 가장 많은 버디를 뽑아낸 선수라고 9일 밝혔다. 노승희는 라운드 당 버디는 3.44개로 16위에 그쳤지만, 올해 치러진 31개 대회에 모두 출전해 컷 탈락은 한 번밖에 없었다. 노승희는 무려 100라운드를 뛰었다. 올해 KLPGA 투어에서 100라운드를 넘긴 선수는 노승희 한명 뿐이다. /연합뉴스

노승희가 잡아낸 버디 344개는 작년 버디퀸 임진희가 뽑아낸 322개보다 12개 더 많다. 임진희는 지난해 99라운드를 뛰었다. 윤이나는 라운드 당 버디를 가장 많이 잡아냈다. 윤이나는 한 라운드마다 4.0526개의 버디를 만들어냈다. KLPGA 투어에서 라운드 당 버디 4개를 넘은 것은 2018년 오지현(4.1449개), 최혜진(4개) 이후 6년 만이다. /연합뉴스



노승희가 잡아낸 버디 344개는 작년 버디퀸 임진희가 뽑아낸 322개보다 12개 더 많다. 임진희는 지난해 99라운드를 뛰었다. 윤이나는 라운드 당 버디를 가장 많이 잡아냈다. 윤이나는 한 라운드마다 4.0526개의 버디를 만들어냈다. KLPGA 투어에서 라운드 당 버디 4개를 넘은 것은 2018년 오지현(4.1449개), 최혜진(4개) 이후 6년 만이다. /연합뉴스